



글로벌 기업 영어 콘텐츠를 활용한 대학 영어 교육 사례연구

김나희(용인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February 28, 2023

Revised: March 15, 2023

Accepted: May 15, 2023

Nahee Kim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Yong In University
E-mail: jk52@yongin.ac.kr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S1A5B5A17091613).

ABSTRACT

Kim, Nahee. 2023. A case study of application of global corporation's English programme to College English classe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3, 397-430.

This research aims to design and conduct a case study of application of a global corporation's English programme to college English presentation classes. It also explores how a global corporation's English curriculum is implemented inside the university language programme. In order to do that, this study adopted Shin et al.'s(2018) storytelling-based curriculum, Kim's (2019) action research on a global corporation's English storytelling programme, and Shin and Kim's (2019) principles of curriculum-based dynamic assessment. Thirty-two students were joined in the research and taught by the researcher during the autumn semester of 2020 language course. This course consisted of three procedures: pre-test, intervention and post-test. According to participants' various reactions to classroom activities, each lesson was revised and conducted, including the researcher's reflections on the curriculum and learners' feedback on teaching. As a result of post-test, learners' presentation performance was improved in terms of verbal/non-verbal presentation skills and English speaking confidence, compared to the pre-test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a global corporation's English curriculum may be effective in learner-centered teaching and learning. It i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for investigating more teachable, assessable and manageable procedures and guidelines to apply to university English courses.

KEYWORDS

College English, global corporation English programme, English speaking, online class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 목적은 글로벌 기업 영어 능숙도 중심으로 기획 개발된 영어 프로그램 콘텐츠의 대학 영어 교육 현장 활용이다. 연구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영어 말하기 시험(예: OPIc 또는 TOEIC-Speaking 시험)성적은 글로벌 기업 환경의 취업, 승진, 인력 선발 등의 인사제도에서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홍수민 2018). 이를 반영하듯 수많은 대학생들은 영어(시험 준비)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어 능숙도 향상에 충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언어(시험 준비)학습 문제는 실제적 언어 능숙도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보다는 원어민 기준의 모방, 암기, 오류 없는 정확한 문법, 구문 표현 중심의 강조이다(신동일 2009). 자신의 언어로 개인 경험을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술하는 영어 말하기가 아닌 모방 및 암기 학습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 개인 경험 기반의 말하기 학습 부족으로 학습자들은 영어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 불안, 낮은 자아감과 같은 부정적 언어 정체성을 경험하기도 한다(Kim 2022). 이러한 언어 (시험 준비) 학습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영어 말하기 능숙도 및 긍정적 언어 정체성 향상을 위한 대안 및 학술적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사교육, 대학 혹은 기업과 같은 기관의 언어 교육 과정은 주로 원어민 중심의 유창성, 표현 학습에 기반을 둔 회화, 비즈니스 영어 그리고 시험 준비 교육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글로벌 인재의 언어 구술 능력은 다양한 인종, 문화, 사회적 배경의 사람들과 협력 및 협상할 수 있는 소통 역량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신동일, 김금선, 심우진, 김나희, 전중운, 김세희, 김주연, 정태영 2018). 다양한 언어 사회적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구사하는 다양한 영어를 이해, 소통, 배려하는 의사소통 능력은 업무 효율과 성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글로벌 기업 영어 능숙도 중심으로 기획 개발된 영어 프로그램 콘텐츠를 대학 교육 현장에 탐색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 글로벌 기업 영어 프로그램 콘텐츠를 다루며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기업 영어 프로그램

기업의 영어 프로그램은 주로 비즈니스 영어 및 시험 준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신동일 외 7인 2018). 비즈니스 영어는 원어민 중심의 유창성, 어휘, 표현 학습에 기반을 둔 회화 및 작문(예: 이메일과 같은 문서 작성)교육이다. 시험 준비는 TOEIC-Speaking 혹은 OPIc과 같은 영어 말하기 시험 대비 과정이다. 위의 영어 말하기 시험 결과는 기업 채용, 인사, 교육 평가 및 인력 선발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기에 시험 준비 프로그램은 기업 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적인 언어 능력 향상보다는 전략, 스킬, 모방 및 암기 등의 강조이다(Anastasi 1981, Fulcher 2010, 신동일 2009). Anastasi(1981: 1087)는 언어(시험 준비)프로그램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단기 훈련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과업 혹은 문항의 형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미 출판된 언어(시험 준비)교재에 있는 과업들을 연습하는 것이다.

둘째, 단기 속성(혹은 코칭 프로그램)이다. 전략, 스킬, 반복 훈련을 통한 집중적인 단기 속성 시험 응시 전략 기반이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언어발달을 위한 인지적 스킬 교육이다. 이 중 과도한 전략, 기술, 모방 및 암기 중심의 언어(시험 준비)활동은 실제적 영어 말하기 능숙도 향상 보다는 단기간 시험 점수 확보에 치중하게 된다. 결국,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영어 말하기 능숙도 향상과 시험 준비 영어가 통합적으로 학습되기 보다는 분리되어 기업 직원의 시간, 에너지, 노력 등이 많이 소모되는 경향이 있다. 적절한 시험 준비 방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어 능숙도 향상 기회가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2.2 기업 영어 교육 관련 선행연구

최근 글로벌 기업의 영어 말하기 능숙도 향상 및 시험 준비 대안으로 스토리텔링 기반의 교육 콘텐츠 개발, 적용 및 실행 사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나희 2019, 신동일, 김나희 2019, 신동일 외 7인 2018). 스토리텔링은 자신이 경험한 일상의 에피소드를 자신의 언어로 시간순서 및 인과관계 서사구조에서 서술하는 영어 말하기이다. 다양한 문화, 언어, 인종의 비즈니스 상황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고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토리텔링 기술은 중요한 과업으로 사용되며 교육된다(신동일 외 7인 2018). 개인 경험 기반의 일상성이 주는 친숙함과 익숙함으로 인하여 청자와의 소통, 공감, 이해를 높이고 감동까지 전하는 기술로도 추천되기에 기업 마케팅 및 리더십 교육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맥락에서 비영어권 성인 영어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긍정적 언어 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술 활동으로도 연구되고 있다. 또한 기업 맥락의 영어 능숙도 평가를 위한 OPIc 영어 말하기 시험의 주요 과제로 시험 준비 프로그램 연구로도 수행되고 있다(김나희 2019).

예를 들면, A 글로벌 기업 영어교육 환경에서 스토리텔링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Stein과 Glenn(1979)의 스토리텔링 발달 단계 및 능숙도 등급을 기반으로 영어 스토리텔링 교육과정(신동일 외 7인 2018)이 기획 및 적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 그림으로 교육과정 적용 절차를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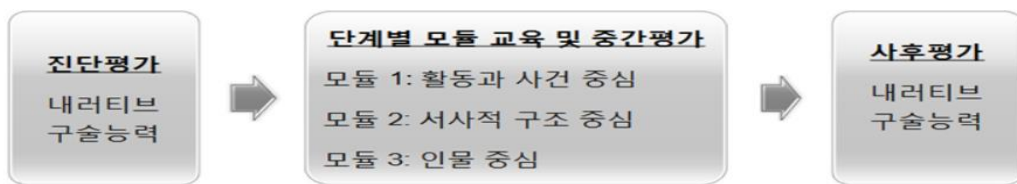


그림 1. 글로벌 기업 영어 스토리텔링 교육과정(신동일 외 7인 2018)

교육절차는 진단평가-스토리텔링 교육 및 중간 평가-교육 종료 후 평가로 진행되었으며, 2명의 한국인 교사가 4개월 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10명의 성인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모듈 1은 시간 순서 및 인과 관계에 따라 활동동사(action verbs)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며, 사건들을 연결하는 연습이다. 모듈 2는 스토리텔링 구조(처음-중간-끝)에서 에피소드 중심의 사건의 도입-갈등-해결에 이르는 스토리텔링 과업으로 진행된다. 모듈 3은 인물들의

관점과 감정에 따라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캐릭터 중심의 스토리텔링이다.

위의 영어 스토리텔링 교육과정(신동일 외 7인 2018)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의 정규 사내 어학과정에 적용한 사례로 영어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연구(김나희 2019)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행된 전체 교육 절차 중 일부를 다음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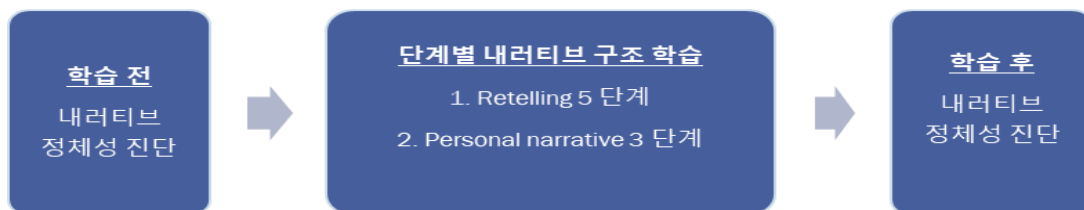


그림 2. 글로벌 기업 영어 스토리텔링 프로그램(김나희 2019)

글로벌 기업의 정규 사내 어학과정(주 2회, 총 16차시 수업, AA지역 소재)의 영어 말하기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으로 개설되었으며 연구자가 직접 교사로 참여하였다. 학습 전 내러티브 정체성 진단은 개인 경험 이야기 서술 과제로 Stein과 Glenn(1979)의 스토리텔링 발단단계 및 구성요소 모형을 사용하여 내러티브 언어와 내러티브 성찰적 반응으로 이해하며 실시하였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단계별 스토리텔링 교육이 두 단계의 모듈 학습으로 진행되었다. 모듈 1에서는 활동 중심(action based) 스토리텔링을 목표로 개인에게 익숙한 일상생활과 과거 경험 등을 소재로 시간 순서 및 인과 관계를 지키면서 활동 동사를 사용한 학습을 하였다. 모듈 2에서는 서사 중심(story structure-based) 스토리텔링을 목표로 모듈 1에서 관찰된 학습자 내러티브 정체성 양상을 반영하여 그림과 스토리 문법요소가 적힌 카드(story grammar cue cards)를 사용한 단계별 스토리텔링 개입(Spencer and Slocum 2010)이 적용되었다. 학습 초반과 다르게 점차 수업이 진행되면서 서사구조 중심의 간략한 에피소드(abbreviated episode)가 등장하는 스토리텔링 단계의 진입, 발화 양과 시간의 증가, 영어 말하기 인식 변화, 자신감 향상 및 업무 환경에의 적용 등으로 개선되었다(김나희 2019).

위 선행연구들은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영어 능숙도 중심으로 기획 개발되어 기업의 언어 교육 현장에 적용되었다. 기업 언어 교육에서 강조되는 내용 및 현장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기업과 다른 대학 환경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 및 사례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 연구를 활용한 탐색 연구로 글로벌 기업 영어 프로그램 콘텐츠의 대학 현장 적용을 시도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현장 및 참여자

본 연구는 기수행 프로젝트의 탐색적 후속연구로 연구 현장이 되는 대학 A(국내 수도권에

위치한 사립종합대학)는 학생들의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대학 학술 목적 영어 기반의 필수 공통 교양영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신입생 대상으로 어학 시험 결과에 따라서 각 단과대학별 수준별 반편성(예: 초급, 중급, 고급)으로 1학기 '대학 영어 1'(학술 작문 수업), 2학기 '대학 영어 2'(학술 구술 발표 수업)과목이 시행(각 15주간 주 2회, 한 회당 90분, 3학점)되고 있다.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전용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공통 교양 과목 개설은 최초인원 10명부터 마감 인원은 30명 정도였다. 본 연구자는 과목 담당 교수자였으며, 2학기 해당 과목 수강 학습자는 문과대학 소속 1학년으로 어학시험결과 영어 능숙도는 중급 레벨이었다. 학습자 인원은 32명이며 전공은 사학(16명), 국어국문(10명), 영미인문(4명), 철학(2명)순이었다. 영어(말하기)시험준비 및 학습 배경은 학습자 모두 과거 공인 영어(말하기)시험 응시 및 준비 경험은 없었다. 1명(장학금 지원위해 토익 시험 준비)을 제외하곤 현재 영어(말하기)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 다수의 학습자들은 과거 영어 말하기 학습(어학연수 및 국외 정규학교 졸업 포함)경험이 없었다. 대부분 현재 영어 말하기 학습은 학교 수업에만 충실하며(단, 외국영화를 활용한 영어 학습/1명, 셀프 스터디 혹은 온라인 프로그램/2명), 영어 학습 필요에 있어서 영어 말하기 자신감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높았다.

3.2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글로벌 기업 영어 프로그램의 대학 현장 적용을 위한 탐색 연구이다. 연구 절차는 글로벌 기업의 영어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실행연구(김나희 2019)를 참조하였다. 실행연구는 연구자가 현장에 직접 개입하여 문제 및 원인 탐색, 개선과 대안을 찾아 적용하는 반복 순환적인 계획-실행-관찰-성찰의 연구 방법이다(Kemmis and McTaggart 1988). 수업 개선을 위하여 교수자가 교실 현장 이해, 문제 및 원인 진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 수업에 적용한다. 이후 관찰, 인터뷰, 설문, 수업 일지 등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여 수업 실행 관찰 및 성찰을 수행한다. 교육 중 문제가 다시 발견되면 앞의 절차를 순환 반복한다. 궁극적으로 교수자는 학습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학습자 중심의 수업 개선 및 프로그램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실행연구의 계획-실행-관찰-성찰의 반복 순환적 방식을 적용하였다.

정리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영어 현장 이해이다. 이를 위하여 대학 공통교양 영어 교육과정, 학습목표, 교재 및 수업 환경 등에 관한 자료 수집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 파악을 하였다. 둘째, 연구 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 영어 콘텐츠 활용 목표 정의이다. 셋째, 수립된 목표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 영어 콘텐츠 활용 정도를 구상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영어 능숙도 중심으로 실제로 기획 개발된 영어 학습 콘텐츠를 조사하였다. 넷째, 수업을 계획한다. 이를 위해 조사된 글로벌 기업 영어 교육, 학습, 평가 등에 관한 문헌들을 참조하여 대학 영어 맥락에서 실제 수업을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현장에 계획된 수업을 교육 전 진단-교육 개입-교육 후 진단 절차로 수행하였다. 교육 전 학습자 영어 능숙도 및 학습 필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기획 및 적용을 하였으며, 교육 기간 동안 수업 관찰, 학습자 피드백, 면담, 교수자 성찰 등의 교육 후 진단을 통하여 교육 내용 및 계획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사후평가로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교육과정, 교육 내용, 과목 개요, 교재, 수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

교수자 수업 성찰일지 및 연구일지, 학습자 피드백, 발화 샘플, 수업(활동)자료, 학습자와의 유무선 소통 자료, 기관 공개 자료, 국내외 문헌 등이다. 수집된 자료는 Bryman(2004)의 분석 및 연구 절차 단계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자료에서 나타나는 중요 어휘, 구, 절 등을 중심으로 각 단계의 특징들을 주제어로 범주화하여 분석 정리 하였다. 예를 들면, 학습자 피드백에서 주제어 ‘수업 장점’에서 하위어는 ‘부담 없는 내용/분량’이며, 그 아래에 ‘단계별 발표 준비 학습’, ‘예시/자료 사용’ 및 ‘학습자 수행 활동 적용’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결과에 나오는 범주는 단계별 연구 절차로 순서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습자 발화 샘플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당초 계획과 다르게 본 연구기간에 발생 및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선행연구의 대면 수업 적용 및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연구 제한점은 후속연구에서 보완할 예정이다.

4. 수정된 계획과 교육 실행

4.1 대학 영어 맥락

본 연구 목적은 기수행 프로젝트의 탐색적 후속 연구로 글로벌 기업 영어 능숙도 중심으로 기획 개발된 영어 프로그램 콘텐츠의 대학 영어 교육 현장 활용이다. 먼저, 연구 현장 이해를 위하여 해당 대학의 공통교양 영어 교육과정, 학습목표, 진단평가, 수업환경 등의 순으로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대학 공통교양 영어(2020년 기준)

구분	항목	내용
1	교육과정	역량 강화 기반의 학술목적 언어교육
2	학습목표	학술 목적 작문(1학기) 및 구술 발표(2학기)향상
3	진단평가	온라인 토익시험: 60분/100문항(LC/듣기:50, RC/독해:50)/ 단과대학별 수준별(초급-중급-고급)반구성/최대 수강 인원은 30명
4	수업환경	온라인(1학기 사전녹화강의, 2학기 사전녹화강의(단, 실시간 화상 강의 가능) 필수 교재는 해외 수입 서적

위의 표를 간략히 설명하면, 본 연구 현장이 되는 해당 대학의 공통교양 영어는 대학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학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과정으로 졸업 이수 기준에 필수적인 교과목이다. 교육과정은 학술 목적 기반의 총 3가지 핵심역량 발달 목표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세계시민’은 주역량(50%)으로 ‘세계 각지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의사소통’은 부역량(40%)으로 ‘언어 또는 다른 매체를 활용하여 타인과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지식’은 부역량(10%)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과목명에서도 공통교양 영어 학습 목표가 분명히 나타난다. 학술 목적 글쓰기 향상을 위하여 1학기에는 ‘대학영어 1’, 2학기에는 학술 목적 발표 향상을 위하여 ‘대학영어 2’ 과목으로

개설된다. 반 편성을 위한 신입생 대상의 진단평가는 온라인 토익시험(총 60분/총 100문항, LC 듣기 50문항, RC 독해 50 문항)이며, 시험 결과에 따라서 단과대학별 수준별(초급-중급-고급)반으로 구성된다. 과목 최대 수강 인원은 30명이다.

수업 환경은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로 인하여 1학기부터 온라인 수업으로(예: 사전녹화강의)진행되었다. 학기 내내 코로나 사태의 진정 국면에 따라서 대면 수업 가능성을 기대하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본 2학기 대학 영어 수업도 온라인 수업이었다. 단, 2학기에는 실시간 화상 강의도 가능하였다. 과목 필수 교재(Gershon 2015)는 학술 목적 발표 학습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해외 수입 서적이다. 교재 구성은 총 6단원이며 각 단원(타이틀) 및 발표 주제는 ‘Unit 1 A Person to Admire’에서는 내가 존경하는 인물 발표, ‘Unit 2 A Great Vacation Idea’에서는 내가 추천하는 여행지 소개이다. ‘Unit 3 Young People Today’에서는 신세대에 관한 특징들을 학습자가 먼저 미니 서베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Unit 4 Let Me Explain’에서는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중요 개념 혹은 원리를 단계별로 설명하기이다. ‘Unit 5 In my opinion’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설득하기이다. ‘Unit 6 In the News’에서는 관심 있는 뉴스를 선택하여 전달하기이다.

4.2 수업 목표

연구 현장 이해를 통하여 계획은 수정되었다. 즉, 2학기 대학 영어 과목은 ‘학술 목적 발표 향상을 위한 온라인 영어 구술 발표 수업’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연구 현장의 교육과정, 과목 개요 및 학습 목표 안에서 해당 과목 목표 수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 및 계획하였다. 첫째, ‘세계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목표는 ‘다양한 학문적 상황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자신감 있는 발표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목표는 ‘학습자 자신의 발표와 다른 학습자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 및 평가할 수 있다’와 ‘언어/비언어적 기술들을 사용하여 발표할 수 있다.’ 셋째, ‘전문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목표는 ‘다양한 학문적 상황에서의 발표 특징 및 효과적인 발표 수행을 위한 계획, 구성, 전달의 지식을 이해하고 발표문을 작성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학습자 주도적으로 발표 수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경험 혹은 생각을 서술하는 영어 발표이다. 세부적으로는 1)청자와 소통하며 발표하는 언어적/비언어적 전달을 학습한다. 2)발음, 억양, 목소리 및 적절한 표정, 아이컨택, 제스처, 자세, 비주얼 에이드(노트카드/PPT)사용법 등을 단계별로 학습한다. 3)청자에게 질문하기, 청자는 발표자에게 질문하기 그리고 발표자는 청자의 질문에 응답하기 등의 직접적인 소통 방법들도 학습한다. 4)발표자에게 질문 및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을 실시한다. 5)각 단원마다 학습자 발표 수행이 실시된다.

4.3 기업 영어 콘텐츠

연구 현장 이해 및 수업 목표를 바탕으로 참조할 수 있는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참조점이 되는 글로벌 기업 영어 교육 연구(김나희 2019, 신동일, 김나희 2019, 신동일 외 7인 2018)를 교육과정, 교육내용, 학습 모듈, 수업활동, 평가 등으로 정리하였다.

4.3.1 교육과정

여기서는 글로벌 기업교육 맥락에서 개발된 스토리텔링 기반의 영어교육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동일과 김나희(2019)논문 내용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스토리텔링 기반 영어교육과정(신동일 외 7인 2018)은 글로벌 기업교육 맥락에서 영어 능숙도 향상을 위하여 Stein과 Glenn(1979)의 모형을 적용하여 스토리텔링 능숙도 등급 기획, 개발 및 실제 기업 교육 현장에 적용되었다. 다음 표는 스토리텔링 능숙도 등급과 각 등급에 따른 언어능력이다(신동일 외 7인 2018).

표 2. 스토리텔링 구술 능숙도 등급과 언어능력

스토리텔링 등급	해당 언어능력의 특성
등급 1: 묘사와 배열	1) 활동(action) 동사를 사용하고 나열할 수 있다. 2) 습관적인 행동 등을 묘사할 수 있다.
등급 2: 활동의 나열 등급 3: 반응과 순서	3)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4)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결속시켜서 전달할 수 있다.
등급 4: 서사 구조	5) 줄거리를 처음-중간-끝 순서로 전달할 수 있다. 6) 사건의 진행을 도입-갈등-해결의 구조로 전달할 수 있다.
등급 5: 인물 중심 서사	7) 사건의 배경을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다. 8) 사건의 등장인물을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다. 9) 등장인물의 목표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할 수 있다.

위의 표를 간략히 설명하면, 가장 낮은 단계인 등급 1은 ‘묘사와 배열’로 이 등급의 학습자 언어능력은 먼저, ‘활동 동사를 사용하고 나열’할 수 있으며, ‘습관적인 행동 등을 묘사’할 수 있다. 그리고 등급 2는 ‘활동의 나열’로 이 등급의 학습자는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며, 등급 3은 ‘반응과 순서’로 해당 학습자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결속시켜서’ 전달할 수 있다. 본격적인 줄거리 중심의 이야기 구술이 시작되는 등급 4는 ‘서사 구조’로 해당 학습자는 ‘줄거리를 처음-중간-끝 순서로 전달’할 수 있으며 이후, ‘사건의 진행을 도입-갈등-해결의 구조’로 전달할 수 있다. 상위 단계인 등급 5는 ‘인물 중심 서사’로 해당 학습자는 ‘사건의 배경 및 등장인물을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으며, 이후 ‘등장인물의 목표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할 수 있다.

4.3.2 교육내용

교육 내용은 스토리텔링 구술 능숙도 등급 향상 목표를 위한 스토리텔링 활동이다(신동일 2016). 본 논문에서는 신동일과 김나희(2019)논문에서 제시된 내용을 다음 표로 정리하였다.

표 3. 스토리텔링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구분	스토리텔링 활동 주제	세부 주제	내용
1	의사소통 활동의 교육 분야	1. 개인 일상 영역	개인의 사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 가족, 친구, 사는 곳과 관련된 내용
		2. 개인 직업 영역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업무 관련 내용
단계	스토리텔링 활동 순서	내용	
1	스토리 다시-말하기 (re-telling)	스토리를 듣거나 읽은 후에 학습자 언어로 구술하기	
2	개인 경험 이야기하기 (I-telling)	과거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하기	
3	개인이 속한 공동체-이야기하기 (We-telling)	확장된 '나'의 이야기로 즉, 개인이 속한 부서, 회사, 지역, 사회 등과 같은 공동체 기반의 이야기 구술하기	

위 표를 간략히 설명하면, 스토리텔링 활동 주제는 의사소통 활동의 교육 분야이며, 세부 주제는 개인 경험 기반의 일상 및 직업 영역이다(신동일, 김나희 2019). 예를 들면, 일상 영역은 개인의 사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으로 개인, 가족, 친구, 사는 곳과 관련된 내용이다. 직업 영역은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업무 관련 활동이다. 또한 스토리텔링 활동 순서는 학습자의 스토리텔링 능력에 따라 다음의 세 단계로 학습된다(신동일, 김나희 2019). 1) 스토리 다시-말하기(re-telling)이다. 이것은 스토리를 듣거나 읽은 후에 기억에 의존하여 구술하는 것이다. 2) 개인 경험 이야기하기(I-telling)이다. 이것은 학습자 개인이 과거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3) 개인이 속한 공동체-이야기하기(We-telling)이다. 확장된 '나'의 이야기로 즉, 개인이 속한 부서, 회사, 지역, 사회 등과 같은 공동체 기반의 이야기 구술이다.

4.3.3 학습 모듈

교육과정은 다섯 단계의 모듈로 구성된다(신동일 2016). 본 논문에서는 신동일과 김나희(2019)연구에서 정리된 내용을 다음 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4. 단계별 학습 모듈

단계	주요 활동	내용
1	Building	스토리텔링 학습의 의미를 숙지하고 스토리의 기본적인 구성요소 연습하기 이야기를 시간 순서, 인과관계로 전달하기
2	Polishing	사람, 물건, 상황 등을 적절하게 지칭하기 일관적 시제 사용하기
3	Characterizing	등장인물 성격, 외모,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스토리 전달하기
4	Strengthening	말하기 스타일 점검하기

		효과적인 의사 소통 전략 학습하기
5	Presenting	스토리텔링 기반의 발표하기

위의 표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Building’은 스토리텔링 학습 의미와 유용성을 숙지하고 스토리의 기본 요소를 연습한다. 2단계 ‘Polishing’은 스토리를 시간 순서, 인과관계로 전달하는 연습 및 사람, 물건, 상황 등을 적절하게 지칭 그리고 시제를 일관적으로 사용하는 학습을 한다. 3단계 ‘Characterizing’은 등장인물 성격, 외모,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와 특정 인물 관점에서 스토리를 전달하는 연습이다. 4단계 ‘Strengthening’에서는 말하기 스타일 점검 및 효과적인 의사 소통 전략을 학습하면서 스토리텔러 정체성을 갖도록 한다. 5단계 ‘Presenting’은 스토리텔링 기반의 발표 학습으로 공식적인 말하기에서의 전략을 학습한다.

수업 활동의 예로 그림 1의 스토리텔링 교육과정(신동일 외 7인 2018)은 실제 기업 교육 현장에 구체적인 세 단계 모듈 수업으로 적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 표로 정리하였다.

표 5. 세 단계의 모듈 학습

모듈	구분	주요 활동	내용	스토리텔링 등급
	1	Daily Activities	· 하루 일과, 특별한 날의 일상을 나열하기	1 등급
1	2	Actions of the Characters	· 활동 동사를 사용하며 묘사하기	2 등급
	3	Sequence of Events	·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서술하기	3 등급
	4	Causal Relationships	· 인과 관계에 알맞게 사건을 서술하기	3 등급
2	5	Retelling	· 활동동사로 이야기 요약하기 · 그림을 보고 이야기 만들기 · 그림에 관한 글을 읽고 다시-전하기	2-3등급
	6	Creating a Narrative Structure	· 주어진(선택한) 스토리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이야기 완성하기 · 주어진 주제에 대해 빠르게 서사구조 완성하기	3-4등급
3	7	Characters	· 인물의 특성, 외모, 성격 묘사하기 · 인물의 목표와 의도를 분석하기	4-5 등급
	8	Story Viewpoints	· 스토리의 관점을 알아보고 특정 인물의 관점으로부터 이야기하기	4-5 등급
	9	Fractured Stories	· 인물 정보를 바꾸어 전체 이야기를 변화시키기	4-5 등급

위 표를 간략히 설명하면, 모듈 1은 ‘활동과 사건 중심 스토리텔링’으로 주요 활동은 스토리텔링 등급 1에서 등급 3까지 학습자가 수행해야 하는 서술능력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총 4단계의 ‘Daily Activities’, ‘Actions of the Characters’, ‘Sequence of Events’, ‘Causal Relationships’이다. 각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하루 일과, 특별한 날의 일상을 나열하기’, ‘활동 동사를 사용하며 묘사하기’,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서술하기’, ‘인과

관계에 알맞게 사건을 서술하기' 등이다.

모듈 2는 '서사 구조 중심 스토리텔링'으로 주요 활동은 스토리텔링 등급 2에서 등급 4까지 총 2단계로 'Retelling'과 'Creating a Narrative Structure'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Retelling' 단계에서의 주요 활동 내용은 '활동동사로 이야기 요약하기', '그림을 보고 이야기 만들기', '그림에 관한 글을 읽고 다시-전하기' 등이다. 'Creating a Narrative Structure'에서는 '주어진(선택한) 스토리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이야기 완성하기', '주어진 주제에 대해 빠르게 서사구조 완성하기'이다.

모듈 3은 '인물 중심 스토리텔링'으로 등급 4에서 등급 5까지의 상위 스토리텔링 학습이다. 총 3단계의 'Characters', 'Story Viewpoints', 'Fractured Stories'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Characters' 단계에서의 주요 활동 내용은 '인물의 특성, 외모, 성격 묘사하기', '인물의 목표와 의도를 분석하기' 등이다. 'Story Viewpoints'에서는 '스토리의 관점을 알아보고 특정 인물의 관점으로부터 이야기하기' 활동이다. 마지막 'Fractured Stories'에서는 '인물 정보를 바꾸어 전체 이야기를 변화시키기' 활동이다.

4.3.4 평가도구

스토리텔링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사용된 평가 도구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신동일, 김나희 2019). 첫째, 스토리텔링 진단평가 도구 CEFR-BK(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Business in Korea)이다. 그림 1의 스토리텔링 교육과정(신동일 외 7인 2018)에 나와 있듯이 사전 및 사후평가에 학습자 스토리텔링 언어 능숙도 진단도구로 사용되었다. 다음은 신동일과 김나희(2019)연구에서 설명된 CEFR-BK 스토리텔링 진단도구 채점표(신동일 2016)이다.

		Long-run Talk				
CEFR Level	Narrative Level	Task 1	Task 2	Task 3	Task 4	CEFR Level
C1	7					C1
C1	6				○ ○	
B2	5		○ ○	○ ○	○ ○	B2
B2	4		○ ○	○ ○	○ ○	
B1	3	○ ○	○ ○	○ ○	○ ○	B1
B1	2	○ ○	○ ○	○ ○	○ ○	
A2	1	○ ○				A2
		I-tell Task		We-tell Task		

그림 3. CEFR-BK 스토리텔링 진단도구 채점표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지면상 간략하게 위 표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신동일과 김나희(2019)연구에서 제시된 약식 채점 절차 내용을 다음 표로 정리하였다. 자세한 채점 항목 설명은 신동일(2016)연구를 참고한다.

표 6. 스토리텔링 진단도구 채점 설명

1. 1차 판정(상위평가항목 판정): 내러티브 레벨 1-7 등급 안에서 1차 판정을 한다.
↓
2. 2차 판정(하위평가항목 판정): 평가항목이 되는 ‘내러티브 구조’, ‘내러티브 언어’, ‘내러티브 스타일’, ‘내러티브 프레젠테이션’ 영역에서 각 0-3등급(0: 결핍, 1: 제한, 2: 노력, 3: 능숙) 2차 판정을 한다.
↓
1) ‘내러티브 구조’ 판정 요소: 배경(setting), 시간순서/인과관계(temporal order/causal relations), 인물 목표/계획(character1(goal/plan)), 인물 시도/문제(character2(attempt/problem)), 해결/결과(resolution/consequence), 반응/평가(response/evaluation)
↓
2) ‘내러티브 언어’ 판정 요소: 주제일관성(topic maintenance), 사건정보(event sequence), 지칭/지시성(referencing), 결속/접속성(conjunctive cohesion), 명확성/활동성(explicitness/actions), 유창성(flucency)
↓
3) ‘내러티브 스타일’ 판정 요소: 목소리(voice quality), 몸동작(gesture/body movement), 표정/눈맞춤(facial expression/eye contact), 지구력/자연스러움(long-run talk/naturalness), 순발력과 전략적 대응(communicative strategies), 인용/예시/유머(quotation/example/humor)
↓
4) ‘내러티브 프레젠테이션’ 판정 요소: 화제도입(topic initiation), 논리 전개(topic development), 마무리/제안(conclusion/suggestion), 일관성/결속성(coherence/cohesion), 예시/근거자료(example), 전략 활용(strategy)

간략하면 설명하면, 1) 채점자는 내러티브 레벨 1-7 등급 안에서 1차 판정을 한다. 이것은 총괄적 채점으로 상위평가항목에서의 채점이다. 2) 2차 판정은 하위평가항목에서의 판정으로 평가항목은 총 4가지 영역이다. 즉, ‘내러티브 구조’, ‘내러티브 언어’, ‘내러티브 스타일’, ‘내러티브 프레젠테이션’ 등이다. 각 영역에서 0-3등급(0: 결핍, 1: 제한, 2: 노력, 3: 능숙) 2차 판정을 한다. 각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내러티브 구조 영역의 판정 요소는 이야기 구조에 대한 세부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배경(setting), 시간순서/인과관계(temporal order/causal relations), 인물 목표/계획(character1(goal/plan)), 인물 시도/문제(character2(attempt/problem)), 해결/결과(resolution/consequence), 반응/평가(response/evaluation) 등이다. 4) 내러티브 언어 영역의 판정 요소는 언어적 논리성과 구체성에 대한 것으로 주제일관성(topic maintenance), 사건정보(event sequence), 지칭/지시성(referencing), 결속/접속성(conjunctive cohesion), 명확성/활동성(explicitness/actions), 유창성(flucency) 등의 세부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5) 내러티브 스타일 영역의 판정 요소는 비언어적 요소로 목소리(voice quality), 몸동작(gesture/body movement), 표정

/눈맞춤(facial expression/eye contact), 지구력/자연스러움(long-run talk/naturalness), 순발력과 전략적 대응(communicative strategies), 인용/예시/유머(quotation/example/humor) 등의 사용이다. 마지막으로 6) 내러티브 프레젠테이션 영역의 판정 요소는 화제도입(topic initiation), 논리 전개(topic development), 마무리/제안(conclusion/suggestion), 일관성/결속성(coherence/cohesion), 예시/근거자료(example), 전략 활용(strategy) 등의 사용이다.

또한 스토리텔링 교육과정에 적용한 평가 모형으로 신동일과 김나희(2019)의 교육과정 기반의 역동적 평가(curriculum-based dynamic assessment: CDA)가 있다. CDA의 강점은 교육과정 안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중심으로 전문가 혹은 교사가 사전평가(표준화 시험 실행 혹은 관찰평가)-학습자 과제 수행 반응 분석-교육 개입(mediated learning experience: MLE)-학습자 관찰-사후평가의 순서로 평가와 교육 활동을 연계시킨다(Lidz 2002). 다음은 스토리텔링 교육과정 기반의 역동적 평가 절차(신동일, 김나희 2019)이다.

표 7. 스토리텔링 교육과정 기반의 역동적 평가 절차

순서	내용
1. 사전평가	학습자 영어 능숙도 진단(예: 스토리텔링 진단평가 도구 CEFR-BK사용)
2. 브레인스토밍	평가결과로부터 학습자 영어 수행능력에 관한 원인 파악
3. MLE 기획 및 제공	사전평가 중심으로 수업 목표 및 교육내용 수정 MLE 전략(의도, 의미, 적용, 능력 등)교육내용에 적용 수업 관찰 및 내용 재조정
4. 사후평가	학습자 영어 능숙도 진단(사전 평가와 동일한 평가도구 사용)

위의 표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순서는 먼저, 사전평가 단계이다. 여기서는 학습자 영어 스토리텔링 능숙도 진단을 위하여 앞서 설명한 스토리텔링 진단평가 도구 CEFR-BK를 사용하였다. 이후, 평가결과로부터 학습자 영어 수행능력에 관한 원인을 파악, 사전평가 결과로부터 학습자들에게 투입시킬 교육(mediated learning experience, MLE) 즉, MLE를 기획하고 제공하였다. MLE 전략(예: 의도, 의미, 적용, 능력 등)을 교육내용에 적용, 교육 기간동안 수업 관찰을 통한 수업 내용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사후평가에서는 사전평가와 같이 동형의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학습자 스토리텔링 영어 능숙도 향상을 파악하였다. CDA 적용 효과는 수업 활동이 진단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기획되고 교육 기간 중에도 학습자 진단을 실시하여 언어 능숙도 기반의 구체적 학습 효과를 보이는 점이다(신동일, 김나희 2019).

본 항목에서는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영어 능숙도 중심으로 기획 개발되어 기업의 언어 교육 현장에 적용된 스토리텔링 기반의 언어 교육과정, 교육내용, 학습 모듈, 수업 활동 및 평가도구 등을 정리하였다. 다음은 수업 실행이다.

4.4 수업 계획

수업 계획에서 고려할 중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기업과 다른 대학 현장 반영이다. 다음은 앞서 설명한 대학 및 기업 영어 현장 비교로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표 8. 대학 및 기업 영어 현장 비교

구분	대학 A(2020년 2학기 코로나)	기업 A(2018년 기준)
교육과정	역량 강화 기반의 언어 교육	언어 능숙도 중심의 언어교육
학습목표	학술 목적 발표 향상	구술 스토리텔링 능숙도 등급 향상
진단평가	온라인 토익 시험	CEFR-BK 스토리텔링 진단도구(신동일 2016) 내러티브 정체성 진단(김나희 2019)
수업환경	온라인 수업(사전녹화/실시간) 수강인원 최대 30명 연 2 학기/학기당 총 15주/주 2회(한 회당 90분, 총 30차시)	대면 수업(사내어학프로그램) 수강인원 최대 12명 연 4 학기/학기당 총 8주/주 2회(한 회당 120분, 총 16차시)
학습내용	교재 단원 내용 중심의 발표 활동 교재 사용(해외 수입 서적)	모듈 학습 기반의 단계별 스토리텔링 활동 교재 사용(연구팀 개발)

위 표에 정리했듯이, 연구 현장이 되는 대학 교육과정은 역량 강화 기반의 언어교육으로 2학기 과목 목표는 학술 목적 발표 향상이며, 교재 단원 내용 중심의 발표 활동이다. 반면,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글로벌 기업 영어 교육(김나희 2019, 신동일 외 7인 2018)은 스토리텔링 능숙도 등급 향상을 위한 언어 교육이다. 즉, 학습 목표에 따라서 교육과정, 교육내용, 학습, 교재 및 평가 등이 서로 연계된 구체적인 스토리텔링 언어 활동 수업이다. 대학 및 기업 영어 교육 내용은 각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둘째, 온라인 수업 실시이다. 당초 계획에서는 대면 수업을 기반으로 모든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 기간 중의 장기 지속 코로나로 인하여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었다. 특히, 해당 과목이 실시되는 2학기에는 기존의 온라인 사전녹화강의 모드에 실시간 화상 강의도 교수자의 교육적 판단에 따라서 가능하였다. 선행연구의 대면 말하기 교육 활동이 온라인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활용 가능성 및 필요 파악이 중요하였다.

정리하면, 글로벌 기업 스토리텔링 영어 콘텐츠 활용은 분명 기업 맥락에서 강조되는 내용을 대학의 언어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기업과 다른 대학 현장의 교육과정, 학습 목표, 진단평가, 수업환경, 학습내용 등의 반영도 필요하였다. 또한 온라인 수업 실시는 새롭게 온라인 플랫폼 이해, 운용 준비 및 사용으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실제 수업 현장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A의 공통교양영어교육과정에 맞추어 그림 1에 제시된 영어 스토리텔링 교육과정(신동일 외 7인 2018), 그림 2에 제시된 글로벌 기업 영어 스토리텔링 프로그램(김나희 2019), 스토리텔링 교육과정 기반의 역동적 평가(신동일, 김나희 2019)에서 사용된 교육 절차, 형식, 내용, 활동 등을 활용하여 교육 전 진단-교육 개입-교육 후 진단으로 대학 언어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대학의 학술 목적 맥락에서 수업의 최종목표는 발표 단계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자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구술하는 영어 발표이다. 교재 단원 별 수업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9. 수업 단계 및 계획

단계	단원(주차)	최종 과업
교육 전 진단	오리엔테이션/수업소개(1)	수업소개, 학습자 영어 능숙도 및 필요 진단
	A Person to Admire (2,3)	Planning and giving a presentation about a person you admire
	A Great Vacation Idea (4,5)	Planning and giving a presentation about a vacation you recommend
	Young People Today (6,7)	Planning and giving a presentation about a survey you conducted
교육 개입	*Mid-term test (8)	
	Let Me Explain (9, 10)	Planning and giving a presentation about how something works or happens
	In my opinion (11, 12)	Planning and giving a persuasive presentation about an issue
	In the News (13, 14)	Planning and giving a presentation about a news story
교육 후 진단	*Final-test (15)	

위 수업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1) 교육 전 진단, 2) 교육 개입 그리고 3) 교육 후 진단이다. 교육 전 진단 결과를 참조하여 교육 개입을 기획 및 실시하여 각 단원 별 최종과업을 목표로 단계별 발표 활동을 실시한다. 다음 항목에서 각 수업 절차에 따라서 실행된 실제 수업 예시를 설명하고자 한다.

4.5 수업 실행

4.5.1 교육 전 진단

교육 전 학습자 영어 능숙도 및 필요 진단을 위하여 오리엔테이션에서 수업 소개, 질문/답변 및 개인 경험 서술 활동 등을 계획하였다(김나희 2019). 하지만 선행연구의 대면 수업 활동 및 내용은 앞서 언급한 코로나로 인하여 연구 현장에서 수정되어 첫 주 오리엔테이션은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익숙한 e-Campus(LMS) 플랫폼의 사전녹화동영상 업로드 및 학습자 질문에 신속히 답변하기 위한 실시간 채팅(LMS 플랫폼의 메시지 기능)을 사용하였다. 다만, 실시간 화상 강의가 아니었기에 학습자 영어 능숙도 진단을 위한 개인 경험 서술 활동은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학습자 영어 능숙도 진단은 수강 전 이미 대학 자체에서 실시한 온라인 어학 능력 시험 결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첫 주에 실시간 화상 강의로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실시간 화상 강의는 교수자 재량의 선택이었기에 충분한 준비와 신중히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온라인 화상 플랫폼(예: zoom, 구글 미트, MS 팀즈 등)에 대한 선행지식습득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관련 워크샵 참여, 기술 교육 팀 문의 및 자문을 구하며 각 플랫폼의 장단점 파악 및 운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였다. 또한 안정적 인터넷 환경 및 비디오/오디오 시스템 점검 등이 필요하였다. 기술적 준비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에서도 온라인

수업 모드에 적절한 수업 활동 선정 및 리허설 등이 필요했다. 교수자 준비와 더불어 학습자 소통을 통한 학습자 필요 및 이해도 중요하였다. 학습자 역시 사전에 온라인 화상 플랫폼에 대한 지식, 실제 사용 경험, 사용 가능 유무, 인터넷 환경, 비디오/오디오 점검 및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습자의 원활한 준비를 위한 교수자의 안내도 중요하였다. 따라서 첫 주에 온라인 학습자 필요 진단 실시 및 진단 결과 기반으로 2주차 수업 모드를 사전녹화 혹은 실시간 화상 강의 플랫폼(예: zoom, 구글 미트, MS 팀즈 등)중에서 선택하기로 하였다.

학습자 필요 진단(예: 학습자 정보, 학습 경험, 현재 상황, 수강 목적, 기대, 영어 활동 선호도, 온라인 수업 모드 경험 및 선호도 등)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들은 1학년 신입생 문과대학 소속으로 학교 진단평가 어학 시험 결과 레벨은 중급이었다. 학습자 모두 과거 공인 영어 (말하기) 시험 응시 및 학습 경험은 없었다. 다만, 학습자들이 경험한 영어 말하기 시험은 고등학교 영어 말하기 수시평가로 주로 독해 지문 암기였다. 따라서 학습자 필요와 수강 목적에서 지문 암기가 아닌 영어 말하기(발표) 실력 및 자신감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예를 들면, 설문지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수업 기대는 ‘이 수업을 통해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으며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또한 평소에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이 수업을 통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영어 말하기 실력 향상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 수업을 통해 영어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긴 제 모습이 가장 기대됩니다.’, ‘독해와 듣기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말하기는 자신이 없는데, 이 수업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영어로 얼버무리지 않고 명확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신감 있는 영어 말하기를 하고 싶어요.’, ‘영어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느끼는 편인데, 이번 강의를 통해 어느 정도의 말하기 실력을 키워보고 싶고, 그로 인해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싶습니다.’, ‘영어를 듣거나 보고 이해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나 말하는 것에는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수업을 통해 말하기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문장이라도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등이다.

또한 학습자가 선호하는 영어 말하기 활동 모드는 짝 활동보다는 개별 학습 선호, 개인 발표 보다는 그룹 발표를 선호하였다. 온라인 수업 경험 및 선호하는 수업 모드는 사전녹화강의 및 실시간 zoom 수업이었다. 각 모드의 장단점으로 사전녹화강의 장점은 ‘언제든지 반복해서 볼 수 있다’, 단점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속적 참여 어렵고 실시간 질문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실시간 zoom 수업 장점은 ‘집중력 높고 소통(질문)가능’, 단점은 ‘오디오 음질, 상태가 안좋고 인터넷이 자꾸 끊어짐’ 등의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다음은 교수자 성찰일지이다.

기업 교육의 직장인과 다른 대학 신입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며 앞으로 수업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학습자들은 영어 말하기 수행 자체가 처음이기에 두렵다면, 나는 첫 온라인 영어 말하기 실시간 수업 실행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온다. 다수 학습자들의 온라인 환경 안정성 여부와 무엇보다 실시간 수업에 대한 학습자 반응이 어떠할지 예측하기 어렵다...(중략)...우선은 이미 수집된 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 사전 리허설을 충분히 하고, 매 수업 시행 후 학습자와 소통하며 반응을 분석해야 될 것 같다.

(교육 실시 전 교수자 성찰 일지 예시)

교육 전 진단을 정리하면, 1학년 신입생들의 영어 말하기 수업에 대한 기대는 높았다. 다수의 학습자들은 입학 전 영어교육에서 자신의 언어로 직접 구술하는 영어 말하기 활동을 수행해 본 경험이 없었다. 경험 부족으로 영어 말하기 활동 자체에 두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본 수업을 통해서 영어 말하기 실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습 동기가 높았다. 학습자들의 높은 기대만큼 교수자는 첫 온라인 영어 말하기 수업 실시 자체에 대한 부담 및 다양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실행이 고민되었다. 다음은 교육 개입 기획 및 실행이다.

4.5.2 교육 개입

교육 전 진단 결과를 참조하여 역동적 평가 절차(신동일, 김나희 2019)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 영어 교육 연구(김나희 2019, 신동일 외 7인 2018)를 활용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기획 및 실시하였다. 첫째, 수업 최종 목표는 학습자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 단계(presentation steps)에 따라서 청중 앞에서 발표하기 과업 수행이다. 둘째, 수업은 최종 목표에 따라서 단계별 발표 활동 기반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재에서 제시하는 발표 단계 및 학습 내용(Gershon 2015)을 다음 표로 정리하였다.

표 10. 발표 단계(presentation steps)

순서	단계별 발표 활동	내용	학습 내용
1	Select a presentation topic	청중 필요와 관심에 맞는 발표 토픽 정하기	Exploring the topic
2	Brainstorm ideas	선택한 발표 토픽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을 브레인스토밍 지도를 사용하여 브레인스토밍하기	Focusing on language
3	Organise your ideas into an outline	아웃라인 표(서론, 본론, 결론 구성)채워보기	Organizing ideas
4	Write an opener and a closer	청중 관심을 끄는 발표 시작 도입(opener) 및 기억에 남는 발표 마무리(closer)써보기	Adding impact
5	Make note cards	발표 시 사용할 수 있는 노트카드 만들기	Developing presentation techniques
6	Practice your presentation	노트카드, ppt슬라이드 사용 및 시간 재면서 연습하기	Present yourself!

위 표를 간략히 설명하면, 단계 1은 청중 필요와 관심에 맞는 발표 토픽 정하기이다. 단계 2는 선택한 발표 토픽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으로 브레인스토밍-지도를 사용한다. 단계 3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는 아웃라인 작성이다. 단계 4는 청중 관심을 끄는 발표 시작 도입(opener) 및 청중 기억에 남도록 하는 발표 마무리(closer)를 써보는 것이다. 단계 5는 발표 시 사용할 수 있는 노트카드 만들기이다. 마지막 단계 6은 노트카드, 발표 자료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시간 재면서 연습하기이다. 단계별 발표 활동은 각 단원의 학습 내용, Exploring the

topic', 'Focusing on language', 'Organizing ideas', 'Adding impact', 'Developing presentation techniques', 'Present yourself!' 등과 연계되어 진행된다.

셋째, 수업 모드는 학습자 의견을 반영하여, 2주차부터 시범적으로 사전녹화강의(이론 수업)와 실시간 zoom 화상강의(말하기 활동 수업)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매 회 수업(주 2회, 한 회당 90분)은 이론과 구술활동으로 구성했으며, 학습자는 먼저, 사전녹화동영상을 시청 학습하면서 동영상 안내대로 말하기 활동을 준비한다. 잠깐의 휴식 후, 실시간 zoom 수업으로 접속하여 앞서 학습한 내용을 영어 말하기 활동으로 수행한다.

넷째, 역동적 평가 절차(신동일, 김나희 2019)의 MLE 원리(의도, 의미, 적용, 칭찬/격려 등)를 각 단원의 교육내용에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의도'는 과제 수행의 목표를 그리고 '의미'는 그것의 유익을 설명한다. '적용'은 학습자의 구체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떻게 과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특히, 학습자 영어 말하기 동기 부여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하여 '칭찬/격려'를 강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학습자 개별 및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교육 기간에도 학습자 관찰, 피드백 수집, 면담 등을 통한 학습자 반응 및 교수자 성찰을 지속하여 계획 수정, 수업 내용 조정 및 학습자와 소통하는 온라인 영어 말하기 수업을 탐색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학습자 의견이 반영된 교육 초반의 사전녹화강의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수업에서 수업 마무리에는 온라인 학습자 피드백을 남기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은 다음 주차 수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원이 끝날 때 마다 실시하는 학습자 개인 발표 수행 모드는 교수자의 교육적 판단과 학습자 필요에 근거하여 소그룹 실시간 개인 발표, 개인 비디오 발표 제출, 대면 발표(코로나 해제 대비)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실시간 화상 구술 활동의 경우도 개별학습, 짝 활동, 그룹 활동,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개인 발표 등으로 단계별로 세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 지속 코로나로 인한 학습자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습자 질문을 적극 장려 및 신속 친절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실시간 수업 시간 이외에도 정해진 시간에 실시되는 온라인 (화상)실시간 질문-답변, 학습자 성찰 피드백 활동, 개별/그룹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위의 교육 개입 기획이 적용된 학습 단원 'Unit 1 A Person to Admire'의 수업계획서 일부이다.

표 11. 수업계획서 예시

단원(주차)	Unit 1 A Person to Admire (2)
단원 목표	학습자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 단계(presentation steps)에 따라서 청중 앞에서 존경하는 인물 발표하기
수업방법	사전녹화강의(예: 이론 수업)와 실시간 화상강의(예: 말하기 활동 수업)병행
수업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습자는 e-Campus(LMS) 녹화영상(35분-40분)수업 시작에 맞추어 시청 학습한다. 2. 휴식(5분-10분 정도 소요)이후에 실시간 zoom 수업 링크로 접속한다. 3. 교수자는 미리 공지한 'zoom 영어 말하기 활동 안내'를 다시 간략히 설명한다. 4. 학습자는 zoom 소회의실로 자동 배치되며, 그룹 말하기 활동을 실시한다. 5. 교수자는 소회의실을 차례대로 방문, 관찰 및 학습자 질문/도움 요청에 답변/반응한다. 6. 소회의실 시간 종료되면, 학습자는 메인 화면으로 자동 이동, 교수자는 오늘 학습내용과 활동 요약 정리 및 학습자 질문/답변 시간 갖는다. 7. 수업 마무리로 교수자는 다음 시간 수업 준비 공지 및 오늘 수업 활동에 대한 온라인 학습자 피드백을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사전녹화 교육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계별 발표 활동 기반 2. 해당 수업 주차의 과업(예: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지도 작성)수행을 위한 이론과 교육(교수자 사용언어는 영어, 필요 시 한국어로 다시 설명) 3. 역동적 평가 MLE 원리(의도, 의미, 적용, 칭찬/격려 등)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도'에서 명시적으로 과제 수행 목표 언급(예: "Today, we're going to think about a person to admire. And following presentation steps, today you are going to complete your brainstorming-map") 2) '의미'에서 그것의 유익 설명(예: "Who is a person to admire? The person may be your role-model who has a positive impact on you. Regarding presentation steps, using a brainstorming-map helps us create more virtually ideas and details about a selected topic") 3) '적용'은 학습자의 구체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떻게 과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예: "When you introduce yourself, you may tell a person to admire as a role model, which will give information of who you are to the audience. Also, what would happen if we gave a presentation without making a brainstorming-map? Would you organize your ideas and details about the topic?") 4) 동기 부여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하여 '칭찬/격려'(예시: Good! At first you didn't think of admirable people, including using a brainstorming-map, but we worked on that and now you know that is important).
실시간 zoom 말하기 활동 일정 및 안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디오 음소거/비디오 켜기 2. 1분 자기소개 (10명 미만) 3. 공지 이후에 자동으로 소회의실로 이동.(소회의실 진행 시간은 15분) 4. "오늘 편성된 소회의실 그룹 멤버에게 웃으며 영어로 인사하기(예시 참고) 5. 조장뽑기 그리고 조장은 조원들 발표 순서 정하기 6. 발표자1은 사전녹화강의에서 작성한 브레인스토밍-지도(BM)설명 및 질문하기(예시 참고) 7. 청중 조원은 한 명씩 발표자1 내용에 대한 좋은 점 한 가지 말하기 8. 발표자1은 조원들이 말하는 의견 적기 9. 발표자1이 끝나면, 위 순서대로 발표자2시작하기. 10. 셋팅 된 시간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메인 화면으로 입장. 11. 활동 종료 후에는 e-Campus/"강의콘텐츠-3페이지"에 오늘 작성한 BM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 하기. 원본은 잘 보관하며, 다음 시간 아웃라인 작성에 필요

위 수업계획서에 따라서 실제 수업에 적용되었다.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수업은

2주차 수업 일부로 학습 단원은 ‘Unit 1 A Person to Admire’이다. 단원 최종목표는 ‘학습자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 단계(presentation steps)에 따라서 청중 앞에서 존경하는 인물 발표하기’이다. 수업 방법은 앞서 언급했듯이 1주차에 수집된 학습자 의견을 반영하여, 2주차의 2번째 수업에서 시범적으로 사전녹화강의(이론 수업)와 실시간 화상 zoom 수업(말하기 활동 수업)을 병행하였다. 수업 절차 및 안내는 사전에 미리 학습자용으로 공지되었다. 예를 들면, 수업 순서는 ‘1) 학습자는 e-Campus(LMS)플랫폼에 업로드된 사전녹화동영상(35분-40분)을 수업 시작 시간에 맞추어 시청 및 학습한다. 2) 휴식(5분-10분 정도 소요)이후에 실시간 화상(zoom)수업 링크로 접속한다. 3) 교수자는 미리 공지한 ‘zoom 영어 말하기 활동 안내’를 다시 간략히 설명한다. 4) 학습자는 zoom 소회의실로 자동 배치되며, 그룹 말하기 활동을 실시한다. 5) 교수자는 소회의실을 차례대로 방문, 관찰 및 학습자 질문/도움 요청에 답변/반응한다. 6) 설정 된 소회의실 시간이 종료되면, 학습자는 메인 화면으로 자동 이동, 교수자는 오늘 학습했던 내용과 활동을 다시 요약 정리 및 학습자 질문/답변 시간 갖는다. 7) 수업 마무리로 교수자는 다음 시간 수업 준비 공지 및 오늘 수업 활동에 대한 온라인 학습자 피드백을 작성하도록 안내한다’이다.

위의 사전녹화동영상 내용은 단계별 발표 활동 기반으로 해당 수업의 수행 과업은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지도 작성이었다. 교수자의 사용언어는 영어이며, 필요한 경우에 한국어로 다시 설명하였다. 앞서 언급한 역동적 평가 절차의 MLE 원리(의도, 의미, 적용, 칭찬/격려 등)를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의도’에서 명시적으로 과제 수행 목표 언급(예: “Today, we’re going to think about a person to admire. And following presentation steps, today you are going to complete your brainstorming-map”), ‘의미’에서는 그것의 유익을 설명하였다(예: “Who is a person to admire? The person may be your role-model who has a positive impact on you. Regarding presentation steps, using a brainstorming-map helps us create more virtually ideas and details about a selected topic”). ‘적용’에서는 학습자의 구체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떻게 과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예: “When you introduce yourself, you may tell a person to admire as a role model, which will give information of who you are to the audience. Also, what would happen if we gave a presentation without making a brainstorming-map? Would you organize your ideas and details about the topic?). 동기 부여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하여 ‘칭찬/격려’(예시: Good! At first you didn’t think of admirable people, including using a brainstorming-map, but we worked on that and now you know that is important)를 제공하였다.

실시간 zoom 수업에서는 위의 사전녹화동영상에서 학습한 내용을 말하기 활동으로 수행하는 연습을 하였다. ‘zoom 영어 말하기 활동 안내’는 학습자용으로 미리 공지되었으며 학습자 활동 순서는 예를 들면, ‘1) 오디오 음소거/비디오 켜기 2) 1분 자기소개 (10명 미만) 3) 공지 이후에 자동으로 소회의실로 이동.(소회의실 진행 시간은 15분) 4) 오늘 편성된 소회의실 그룹 멤버에게 웃으며 영어로 인사하기 5) 조장뽑기 그리고 조장은 조원들 발표 순서 정하기 6) 발표자1은 사전녹화강의에서 작성한 브레인스토밍-지도(BM)간단히 설명 그리고 질문하기 7) 청중 조원은 한 명씩 발표자1 내용에 대한 좋은 점 한 가지 말하기 8) 발표자1은 조원들이 말하는 의견 적기 9) 발표자1이 끝나면, 위 순서대로 발표자 2 시작하기 10) 셋팅 된 시간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메인 화면으로 입장 11) 활동 종료 후에는 e-Campus/“강의콘텐츠-3페이지”에 오늘 작성한

BM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 하기. 원본은 잘 보관하며, 다음 시간 아웃라인 작성에 필요' 와 같이 진행되었다. 마찬가지로 학습자 사용언어도 영어이며, 필요시 한국어 사용가능으로 하였으며, 영어 예시는 소회의실 자동배치 이전에 교수자 안내로 메인 화면에서 학습자 전체가 큰 소리로 말하기(read aloud)활동을 하였다.

4.5.3 교육 후 진단

교육 후 진단은 교육 전과 마찬가지로 학습자 영어 능숙도 및 필요 진단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수정 및 추가하였다. 예를 들면, 학습자 영어 능숙도 진단은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수행해야 되는 해당 과목의 필수 과업인 발표로 하였다. 또한 말하기 활동 수업에서 파악되는 교수자 관찰평가도 포함시켰다. 학습자 필요 진단은 수업 후 온라인 학습자 피드백 작성-교수자 분석 및 진단-결과로부터 교수자 성찰 및 수업 개선을 위한 실천으로 수업 계획 및 내용 조정에 적극 반영되었다. 앞서 수업 예시로 제시했던 교육 초반의 병행수업(예: 사전녹화강의 및 실시간 화상강의)의 경우에 수업 후 바로 온라인 학습자 피드백 작성,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개선점은 다음 주차 수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다음 표는 사전녹화강의 후 실제 수집된 학습자 피드백 예시이며 주제어로 분류 및 정리하였다.

표 12. 사전녹화강의 학습자 피드백 예시

구분	주제어	사전녹화강의-학습자 피드백 예시
1. 좋은 점	반복시청	“끊김 없이 학습이 가능하며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다(학생A).” “미리 녹화된 강의였기때문에 진행이 매끄럽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다시 돌려볼 수 있다(학생B).”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영어 단어 풀이가 있던 내용을 다시 볼 수 있어 좋았다(학생C).”
	부담 없는 내용과 분량	“발표 준비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브레인스토밍부터 시작하여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다(학생D).”/“책에 나온 예시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직접 예를 들어주셔서 더 와닿았다(학생E).”
	준비 학습	“교수님께서 예시를 들어주시는 등 책의 활동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 편했습니다(학생F).” “또 교재의 예시를 보고, 저의 내용으로 직접 작성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학생G).”/“녹화 강의 중간에 읽어보세요~라고 하실 때 수업 중 영어 말하기를 연습할 기회가 생겨서 좋았습니다(학생H).”/“교수님께서 강의 자료실에 올려주신 동영상 링크를 통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학생I).” “사전녹화강의에서 수업과 자료영상이 연습하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된 점이 좋았습니다(학생J)!”/“내용이 전반적으로 쉬운 편에다 양이 적어서 좋습니다(학생K).”
	교수자 영어/한국어 순차 사용	“이해 안 될 법한 부분을 한국어로 다시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도 쉬웠습니다(학생L)!”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진행하니 강의가 훨씬 수월하게 들리고 강의 흡입력이 좋은 것 같다(학생M).”/“본문의 내용을 읽어 주셔서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학생N).”
	피드백 반영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학생O).”

	잘 안 들리는 소리	“리스닝을 할 때, 잘 들리지 않는 부분도 있어 몇 번 돌려 들었다(학생P).” “교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학생Q).”
2. 어려운 점	생소한 토픽/단어 어려움	“교재내용과 관련된 발표영상(유튜브 클립)을 듣고 교재의 빈칸을 채우는 게 어려웠다. 여러번 돌려 들어도 어떤 걸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빈칸을 그대로 두게 되었다(학생R).”/“브레인 스토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소한 분야에 있는 인물을 지정해서 완성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학생S)”, “평소에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생각할 일이 별로 없는데 카테고리별로 생각해보고 정해야해서 조금 어려웠다(학생T).”, “브레인스토밍에서 10개이후로 더 떠오르지않습니다(학생U).”/“단어가 영영풀이로 되어있어서 몇가지 단어에서 막혔지만 영상 재생을 잠시 멈춘 뒤 차근차근 해석하여 이해했습니다(학생V).”
	많은 활동/시간 부족	“해야하는 활동이 많아서 시간안에 모두 하기 어려웠다(학생W).”, “양이 많아서 중간중간 집중하기 어려웠다(학생X).”, “사전녹화강의 길이가 40분이더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활동까지 하면 시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해 사전녹화강의를 다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었다(학생Y).”/“녹화 강의도 듣고, zoom 강의 준비도 해야 해서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학생Z).”, “사전강의를 먼저 진행한 후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다보니 교수님은 너무 좋으나 수업이 조금 정신 없다(학생AA)”
	음질 개선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 마이크 음질이 조금 더 깨끗했으면 좋겠다(학생P).” “영상에 음질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학생Q).”
3. 개선점	순서변경1-녹강 먼저 다른 요일 (선행학습)	“활동시간이 조금 더 여유로우면 좋을 것 같다(학생W).”/“zoom강의 시작 전까지 딱 끝낼 수 있게 강의를 좀 이르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학생Y).”/“화요일에 사전녹화강의를 듣고, 준비한 다음 금요일에 zoom을 이용해 발표나 토론을 하는 게 어떨 지 생각합니다. 준비시간이 충분해 모두들 긴장을 덜할 것 같습니다(학생Z).”
	순서변경2-실시간 먼저 녹강 시청	“zoom을 먼저 하고 사전녹화강의를 듣는게 더 좋을 것 같다(학생X).” “실시간 강의를 30분 정도 진행한 후, 실시간 강의를 끝난 후에 녹화 강의를 바로 수업 날 시청하는 식으로 하면 더욱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날에 강의를 올라온다면 오히려 강의가 헛갈릴 것 같습니다(학생AA).”
	기타	“더 집중하려고 노력해야겠다(학생R).”/“정답을 음성뿐만 아니라 텍스트로도 제공한다면 어떤 단어를 어떻게 발음했는지 파악하기 더 쉬울 것이다(학생V).”

위 표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수업은 첫 주에 실시한 학습자 필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주차부터 시범적으로 수업 시작 시 먼저, 사전녹화강의(이론 수업)로 시청 학습 후, 잠깐의 휴식을 갖고 바로 실시간 zoom 화상강의(말하기 활동 수업)를 병행하였다. 수업 후 진단을 위하여 온라인 학습자 피드백 조사(예: 간단한 질문 세 개에 서술 응답)를 실시하였다. 질문 순서대로 사전녹화강의에 대한 학습자 피드백을 살펴보면, 질문 1) ‘좋은 점 하나적기’에서는 총 4개의 주제어로 정리되었다. 즉, ‘반복시청가능’, ‘부담 없는 내용과 분량(예: 단계별 학습/예시 및 자료 사용/학습자 적용 활동)’, ‘교수자의 영어/한국어 순차 사용’, ‘학습자 피드백 반영’ 등이다. 각 주제어를 살펴보면, 첫째, ‘반복시청가능’의 경우에는 사전녹화강의 전달모드에 대한 학습자 반응으로 교육 전 학습자 필요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둘째, ‘부담 없는 내용과 분량(예: 단계별 학습/예시 및 자료 사용/학습자 수행 활동)’은 사전녹화강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한 학습자 반응으로 동영상 구성이 ‘단계별 발표 학습’(예: “발표 준비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브레인스토밍부터 시작하여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다.”)순서대로 진행된 점,

‘예시와 자료 제공’(예: “책에 나온 예시 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직접 예를 들어주셔서 더 와닿았다.”, “강의 자료실에 올려주신 동영상 링크”)으로 이해를 도운 점 그리고 ‘학습자 수행 활동’(예: “저의 내용으로 직접 작성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으로 적용된 구성 등이 학습자에게 좋은 점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교수자의 영어/한국어 순차 사용’은 동영상의 교수자 기본 사용언어는 영어이다. 단,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로 먼저 설명한 후에, 같은 내용을 한국어로 요약 정리하였다. 이러한 순차적 언어 사용에 있어서 학습자 반응은 긍정적이었다(예: “이해 안 될 법한 부분을 한국어로 다시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도 쉬웠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진행하니 강의가 훨씬 수월하게 들리고 강의 흡입력이 좋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피드백 반영’에 대한 좋은 반응도 있었다(예: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질문 2) ‘어려운 점 하나 적기’에서 수집된 학습자 피드백 예시는 총 3개의 주제어로 분류 정리되었다. 즉, ‘잘 안 들리는 소리’, ‘생소한 토픽/단어 이해’, ‘많은 활동/시간 부족’ 등이다. 각 주제어를 살펴보면, 첫째, ‘잘 안 들리는 소리’는 사전녹화강의 음질 문제로 “리스닝을 할 때, 잘 들리지 않는 부분도 있어 몇 번 돌려 들었다.”, “교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라는 학습자 의견이다. 둘째, ‘생소한 토픽/단어 어려움’은 사전녹화강의 내용에 대한 학습자 반응으로 “교재내용과 관련된 발표영상(유튜브 클립)을 듣고 교재의 빈칸을 채우는 게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학습단원의 토픽(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평소에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생각할 일이 별로 없는데 카테고리별로 생각해보고 정해야해서 조금 어려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강의영상에서 영어 “단어 영영풀이로 되어있어서 몇가지 단어에서 막혔지만 영상 재생을 잠시 멈춘 뒤 차근차근 해석하여 이해했습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위 학습자 피드백의 어려운 점 개선을 위하여 학습자가 방안을 제안하는 질문 3) ‘개선점’ 작성하기를 하였다. 수집된 학습자 피드백 예시는 총 4개의 주제어로 분류 정리되었다. 즉, ‘음질 개선’, ‘강의순서변경 1’(예:다른 요일에 녹장/실장 따로), ‘강의순서변경 2’(예:수업 당일 선실장/후녹장), ‘기타’ 등이다. 먼저, ‘음질 개선’에 있어서는 마이크 및 기술 개선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안이다. 특히, 병행강의에 있어서, 강의 순서 변경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강의순서변경 1’은 실시된 병행강의 순서에서 다른 수업 요일(예: 화요일)에 먼저 선행학습으로 사전녹화강의를 시청 학습 후, 나머지 수업 요일(예: 금요일)에서 실시간 말하기 활동을 실습하자는 의견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과목은 주 2회, 매회 90분 수업이기에 위 제안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강의순서변경 2’는 수업 당일 시작시간에 맞추어 실시간 강의를 먼저 한 이후에 사전녹화강의 시청 학습하자는 의견이었다.

다음은 위의 사전녹화강의 후 진행된 실시간 zoom 말하기 활동 수업에 대한 학습자 피드백 예시이다.

표 13. 실시간 zoom영어 구술 활동 학습자 피드백 예시

구분	주제어	실시간 zoom영어 구술 활동-학습자 피드백
1. 장점	소통/참여 /집중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우분들의 얼굴을 보며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얼굴을 보며 얘기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학우의 얼굴을 보면서 수업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서로의 얼굴도 알아가고 말하기 활동도 직접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소통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제한된 시간으로 많은 인원의 참여가 불가능 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학생분들을 전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실시간 강의라 집중을 잘 되었다”, “사전녹화 강의보다 집중할 수 있었고 여러 동기들을 만나 볼 수 있어 좋았음.”
	교수자 진행/편안한 분위기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시며 분위기를 만드신다는 점이 좋았습니다.”/“학우들의 반응이 좋았고 교수님께서 편안하고 부담없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셔서 시작하기 이전보다 막상해보니 부담이 적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발표 수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교수님과 학우들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준 덕분에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고 자기소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얼마 안봐었지만 항상 밝은 미소로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나네요!”, “교수님께서 높은 텐션으로 강의해주셔서 저도 덩달아 강의에 계속 집중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점 같습니다.”/“뽕김없이 깔끔하게 진행된 덕에 불편함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셔서 좋았습니다!”
2. 단점	음질/어플 조작 /줌시간제한	“잡음이 너무 많아 불편했다.”, “여전히 인터넷 연결 문제와 마이크 문제가 발생하여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음성이 고르지 않아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처음 어플 조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음성 조정, 소회의 참가 등)”/“줌 활동에 제한시간이 있다.”, “다른 플랫폼을 찾아보거나 발표가 필요할 땐 명단을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행강의 부담/많은 활동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던 부분은 교수님께서도 방법을 모색해보자고 하셨던 부분인 반드시 강의를 우선적으로 보고 ZOOM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점입니다. 강의 보는 시간과 ZOOM 수업을 참여하는 시간 텅이 길지 않아 약간의 촉박함과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녹강 다음 바로 실강을 들어야 해서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한 수업에 너무 많은 걸 시도한다는 느낌이 들어 수업이 혼란스러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하기 긴장/영어읽기	“실제로 말하기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의 문제지만 영어로 쓰여진 글을 계속 읽는 것은 힘들네요.-집중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
3. 개선점	음질개선: 음소거/마이크점검/	“음질 개선을 위해 발표자 외 모두 음소거를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마이크가 부착된 이어폰을 사용하면 음질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음질이 나쁜 점을 개선하면 좋겠다”“각자 수업 전에 마이크와 비디오를 미리 체크하여 수업의 흐름을 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zoom개선: 여러번시도/제한시간	“여러번 시도하며 조작법을 익힌다.”/“제한시간이 다 될때마다 소회의실을 다시 만드다.”
	비참여 학우 방안	“비디오나 마이크가 안켜지시는 학우들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서변경1	“대학영어는 일주일에 2번 수업이 들어 있기에 선행되는 요일에 동영상 강의로 미리

:선녹강- 후실강	학습한 후, 이어 다른 요일 강의에 ZOOM 수업으로 활동을 한다면 앞서 말한 단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리 녹강을 들 수 있다면 수업을 듣는 것이 매우 편해질 것 같습니다.”
순서변경2 :선실강-후녹 강	“시간이 촉박한 점은 순서를 바꾼다면(중수업 먼저 그리고 녹강)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가능하다면 강의 시간을 주차별로 화요일은 실강, 금요일은 녹강 이러한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혼돈이 조금 줄어들것 같습니다.ㅠㅠ”
기타(그룹활 동/한 목표 완전히)	“그룹활동을 지금보다 더 활발히 했으면 좋겠음” “한 번에 많은 것을 해결하기 보다는 한 목표를 완전하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업 후 진단을 위하여 온라인 학습자 피드백 조사(예: 간단한 질문 세 개에 서술 응답)를 실시하였다. 질문 순서대로 실시간 zoom 화상강의(말하기 활동 수업)에 대한 학습자 피드백을 살펴보면, 질문 1) ‘장점 하나 작성하기’에서는 크게 2개의 주제어로 정리되었다. 즉, ‘소통/참여/집중’과 ‘교수자 진행/편안한 분위기’이다. 각 주제어를 살펴보면, 첫째, ‘소통/참여/집중’은 실시간 화상 전달모드에 대한 학습자 반응이다. 예를 들면, 학습자들은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소통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라는 의견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실시간 강의라 집중을 잘 되었다” 등의 순서로 언급하였다. 학습자들은 화면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는 것에 가장 큰 의의와 만족감을 경험하였다.

둘째, ‘교수자 진행/편안한 분위기’는 실시간 영어 말하기 수업의 교수자 역할이다.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1학기 사전녹화강의에 익숙했던 학습자들이 처음 경험하는 실시간 화상 영어 말하기 활동 수업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이 동시에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앞서 설명한 사전녹화강의 긍정 피드백과 비교한다면, 사전녹화강의에서는 ‘동영상 콘텐츠 구성과 내용’, 실시간 강의에서는 ‘교수자 진행과 수업 분위기’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전달모드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기대와 만족도 또한 다르며, “편안하고 부담없는 분위기 조성”이 한국인 성인 학습자 말하기 활동(김나희 2019)에 긍정적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질문 2) ‘단점 하나 작성하기’에서는 총 3개의 주제어로 정리되었다. ‘음질/어플 조작 어려움/줌시간제한’, ‘많은 활동/병행강의 부담’, ‘말하기 긴장/영어읽기’ 등이다. 각 주제어를 살펴보면, 첫째, ‘음질/어플 조작 어려움/줌시간 제한’은 실시간 zoom 전달모드의 단점으로 “인터넷 연결 문제와 마이크 문제가 발생하여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음성이 고르지 않아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와 같이 여전히 사전녹화강의와 마찬가지로 소리 어려움이 있었다. zoom 어플 사용이 처음이기에 기능들 사용이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zoom 시스템 시간제한(최대 40분)으로 인하여 40분 경과 후에는 화면에서 이탈되어지기에 수업 흐름이 끊기는 어려움도 있었다. 둘째, ‘병행강의 부담/많은 활동’은 병행강의 단점으로 “녹강 다음 바로 실강을 들어야 해서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강의 보는 시간과 ZOOM 수업을 참여하는 시간 텀이 길지 않아 약간의 촉박함과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와 “한 수업에 너무 많은 걸 시도한다는 느낌이 들어 수업이 혼란스러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와 같은 의견들이었다. 셋째, ‘말하기 긴장/영어읽기’는 실제 수업 영어 활동에 관한 것으로 “실제로 말하기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쓰여진 글을 계속 읽는 것은 힘들네요”처럼 영어

활동에 관한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위의 단점 개선을 위하여 학습자 스스로 질문 3)에서 ‘개선점’으로 작성해보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이 제안한 방안을 주제로 정리하면 ‘음질 개선’, ‘zoom개선’, ‘비참여 학우’, ‘순서 변경1’(선녹강/후실강), ‘순서변경2’(선실강-후녹강) 등이다. 특징은 앞서 설명한 사전녹화강의 개선점과 유사하다. 먼저, ‘음질 개선’ 방안으로 ‘음소거/마이크 비디오 점검’ 이 제안되었다. 즉, “음질 개선을 위해 발표자 외 모두 음소거를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마이크가 부착된 이어폰을 사용하면 음질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각자 수업 전에 마이크와 비디오를 미리 체크하여 수업의 흐름을 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의 내용이다.

‘zoom개선’은 앞서 단점으로 언급된 ‘어플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방안으로 “여러 번 시도하며 조작법을 익힌다”라고 학습자 스스로 사용법을 숙지하고 연습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Zoom 제한시간’으로 인한 수업 끊김에 대한 방안으로 “제한시간이 다 될 때마다 소회의실을 다시 만든다.”라고 제한시간 되기 전에 교수자가 미리 준비한다라는 방안이다.

‘비참여 학우’에 대한 “비디오나 마이크가 안켜지시는 학우들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언급도 있었다. 수업 활동 전에 학습자들에게 비디오 및 마이크 사용을 안내하며 강조하였지만, 교육 초반이기에 학습자 적응 시간이 필요하였다. 개선을 위하여 우선은 사전안내교육 횟수를 높이고 반복될 경우에는 수업 후 개별면담을 하기로 하였다.

‘순서변경1’(선녹강/후실강) 및 ‘순서변경2’(선실강-후녹강)는 사전녹화강의 개선점과 유사하다. 즉, ‘순서변경1’ 제안은 “대학영어는 일주일에 2번 수업이 들어 있기에 선행되는 요일에 동영상 강의로 미리 학습한 후, 이어 다른 요일 강의에 ZOOM 수업으로 활동”하자는 제안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순서변경2’는 “화요일은 실강, 금요일은 녹강”이었다.

‘기타’의견으로 “그룹활동을 지금보다 더 활발히 했으면 좋겠음”, “한 번에 많은 것을 해결하기 보다는 한 목표를 완전하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와 같이 실시간 화상 말하기 활동 증가 및 병행강의 개선에 대한 요청으로 파악된다.

학습자 피드백 진단 후, 교수자 성찰 및 실천으로 수업 계획 및 내용 조정에 반영되었다. 다음은 학습자 피드백 중에서 질문 3의 학습자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작성한 ‘음질 개선’, ‘강의순서변경’, ‘기타’ 등에 대한 간략한 교수자 성찰 및 실천 요약이다.

표 14. 교수자 성찰 및 실천 요약

구분	‘음질 개선’	‘강의순서변경’	‘기타’
사전녹화	사전녹화동영상 제작 시, 음질 개선을 위한 마이크 교체 환경 재점검	전체 학습자 시범적으로 진행	학습자 집중위해 강의콘텐츠 후, 방안 모색, 정답 음성 및 해당 텍스트 제공 등
실시간 zoom	발표자 제외하고 음소거 및 학습자 마이크 점검 사전교육	주차 첫째 수업 요일에 녹화강의, 두번째 수업 요일에 실시간 수업 실시	수업목표에 집중하는 화상(소회의실 그룹)활동 내용 강화, 비디오,마이크 켜기 강조 등

위 표를 교수자 성찰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음질 개선’을 위하여 사전녹화동영상 제작 시, 교수자 마이크 교체 및 녹음 시 (인터넷) 환경을 재점검하였다. 실시간 zoom 수업 시에

는 발표자를 제외하고 음소거 및 사전교육으로 학습자 마이크/비디오 점검을 안내하였다. 둘째, 병행강의에서 '강의순서변경'이다. 해당 수업 날 병행강의를 실시했던 근거는 교수자의 교육적 판단과 학습자 필요 반영이었지만, 실제 실행해보니 학습자 피드백과 유사한 교수자의 어려움도 있었다. 다음은 교수자 성찰 일지 일부이다.

학습자와 소통하는 교육적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병행강의를 실행했지만 두 가지 다른 모드를 한 수업에서 하려고 하니, 의도는 좋지만, 실체는 시간과 집중력이 많이 요구된다. 녹화영상과 줌 말하기 활동을 각각 준비하다 보니, 아직은 이것을 능수능란하게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수업 당일 학습자들의 다양한 메시지들이 실시간으로 도착한다. '교수님, 갑자기 줌 화면에서 튕겨졌어요. 출결 어떻게 되나요?', '줌 링크에 접속이 안되요.', '오늘은 마이크(비디오)가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등등. 학습자 소통을 강조한 영향일까... 학습자들은 내게 다양한 그들의 상황을 솔직하게 알려준다. 정직하게 알려주니, 참 고맙다. 그런데, 학습자들의 환경 변수가 많아서,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교육 초반 교수자 성찰 일지 예시)

즉, 수업 시작과 맞추어 사전녹화강의와 실시간 말하기 활동 수업이라는 두 가지 다른 모드를 준비하고 수행하다 보니 각 모드에 따른 시스템 문제(학습자 피드백 예시 참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였다.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교수자도 한 회 수업에 많은 활동 준비, 수행 및 돌발상황 대처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강의순서 변경안은 전체 학습자 설문조사 후, 시범적으로 선행학습으로 해당 주차 첫째 수업 요일에 녹화강의, 두번째 수업 요일에 실시간 화상 수업 실시로 각각 따로 하였다. 그리고 다시 학습자 피드백을 수집하여 진단, 교수자 성찰 및 실천 등의 절차에 따랐다.

셋째, 실시간 zoom(소회의실)말하기 수업(활동)이다. 학습자 피드백처럼 실시간 zoom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비디오 혹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활동에 참여 혹은 불참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다음은 교수자 성찰 일지 일부이다.

대면 수업의 영어 말하기 활동은 짝 혹은 그룹 활동으로 진행되어도 한 교실에서 활동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줌의 소회의실 기능은 한 번에 한 조씩 참가하여 피드백 혹은 관찰을 해야된다. 비디오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학습자가 있을 경우에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영어 말하기 활동을 진행 및 수행해야 되는데, 아직은 무리이다. 교수자 방문이 필요한데 제한된 시간상, 모든 조를 다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해결은 한 조의 인원을 늘리거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별 인원이 많으면 활동 수월성이 떨어지고, 다른 플랫폼으로 바로 변경하기에는 고려할 상황들이 너무 많다.

(교육 초반 교수자 성찰 일지 예시)

과목 목표에 따라서 영어 말하기 발표 수행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실제 zoom 소회의실 활동은 대면 수업 활동과는 확연히 달랐다.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지속되다보니 교수자와 학습자간 그리고 학습자간 적응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불안정한 인터넷 환경, 얼굴 공개 및 구술

활동 자체를 불편해 하거나 높은 긴장감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전교육강화 및 개별 면담을 통하여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 발표 수행을 수업 활동에서 익숙한 소회의실 그룹 활동 모드와 유사하게 소그룹으로 편성(학습자 발표 가능 시간으로 편성)하여 온라인 실시간 발표 수행으로 진행하였다. 소그룹으로 하다 보니 학습자 집중, 인터넷 안정성, 교수자의 원활한 진행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교수자 한 명이 여러 소그룹을 감당하기에는 시간적 체력적 어려움이 컸다.

또한 교육 초반 교수자 역시 처음으로 수행하는 실시간 화상강의 비디오(화면)기능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 화면에 실시간으로 동시에 다수의 학습자들의 다양한 얼굴표정, 반응, 수업 태도 등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 의도와 상관없이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비언어적 피드백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교수자 성찰 일지 일부이다.

수업 중간에 학습자 비디오가 꺼지는 경우도 있고, 카메라 위치가 학습자 얼굴이 아닌 벽을 향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진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나는 순간 당황하게 되고 여러 생각이 든다. ‘어떤 상황이 생겼구나’, ‘수업이 재미가 없구나’ 등등.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생각할 때, 실시간 채팅 메시지가 오기도 한다. “교수님, 화면을 계속 쳐다보니 눈이 너무 아파서 잠시 꺼도 될까요?”, “교수님,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화면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식 수술을 해서 조금 쉬어도 괜찮을까요?” 등등. 학습자들의 솔직하고 정직한 실시간 채팅 메시지들을 읽다 보면 학습자도 나처럼 30분 이상 화면을 보는 것이 체력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교육 초반 교수자 성찰 일지 예시)

처음 수행하는 실시간 화상 강의는 사전녹화강의와 여러 면에서 달랐다. 사전녹화강의는 강의콘텐츠의 구성, 내용, 편집 그리고 분명한 음성 전달에 신경을 썼다. 하지만 실시간 화상강의에서는 말그대로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학습자의 다양한 상황, 반응, 문제 등에 대해서 유연하고 차분 신속하게 대처하는 순발력과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였다. 교육 초반 교수자의 어려움은 뚫어지게 화면을 보고 있는 학습자들 혹은 반대의 경우를 마주하면서 수업 활동을 진행해야 되는 점이었다. 그리고 학습자가 영어 말하기 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칭찬, 격려, 밝고 따뜻한 수업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믿고 기다려주는 부분이었다. 물론, 꺼져있는 학습자 화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화면 켜주세요”라고 강도높은 요청 혹은 패널티 부여 방안도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 방안은 결국 영어 말하기 활동을 불편한 혹은 위협적으로 만들 수 있기에 피하였다. 오히려 교육 기간 내내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집중하며 즐겁고 적극적으로 영어 말하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실제 수업 현장에서 다양한 학습자들의 반응에 한결 같은 여유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다. 긍정적 수업 분위기 형성을 위하여 표면적으로는 여유롭게 대응하는 듯했으나 실제 마음은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수업 모드 및 방법을 시도할 때마다 교육 후 진단을 하였다. 하지만,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은 다수의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면서 어떻게 수업 내용 및 운영에 반영할지 여부였다. 각 개인의 인터넷 환경이 다르고, 수업 전달 모드 및 내용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앞서 학습자 피드백에서도 나와 있듯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여도 반응은 다양했다. 다음은 교수자 성찰 일지 일부이다.

교육 전 학습자 필요조사에서도 다양한 학습자 의견들을 어떻게 실제 수업에 적용할지 부분이 고민이었는데, 수업이 진행되면서도 다양한 학습자 반응을 수집하여 검토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꽤 걸렸다. 분명 온라인 플랫폼에서 학습자 의견 수집 자체는 수월하다. 하지만 수집 후 학습자 의견을 검토, 개선을 위하여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지 등에 대한 선택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 이러한 적용 혹은 미적용 부분을 수업에서 학습자들과 소통할 필요도 있었다...(중략)...여전히 학습자 필요에 따라서 사전녹화강의 및 실시간 줌 수업 순서, 만족도, 이해도 등은 다양하다. 학습자 발표 횟수도 “부담은 되어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긍정 반응과 반대로 “횟수가 많기에 어렵다”는 반응 등으로 분분하다.

(교육 중반 교수자 성찰 일지 예시)

다양한 학습자 피드백 대응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수집 후에는 진단 결과를 요약 정리, 학습자들과 공유하며 본 교수자의 성찰을 나누었다. 그리고 수업 개선을 위한 건설적 방안을 제안한 학습자 아이디어는 칭찬 격려하며 적극적으로 채택하였다. 여러 의견으로 나뉘어질 때에는 학습 목표 안에서 필요 시 전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혹은 교수자의 교육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유를 설명하며 학습자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5.4 학습자 영어 발화

학습자 영어 능숙도 진단은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실시해야 되는 해당 과목의 과업인 발표로 하였다. 전체 교육에서 중후반으로 갈수록 학습자들은 온라인 병행수업 모드에 익숙해지면서 발표 준비에 성실, 제공되는 교수자 및 동료 피드백들을 적극 수용, 각 단원의 목표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학습 목표이기도 한 영어 말하기 자신감 향상을 위하여 교수자 및 동료 피드백 제공 시, 먼저 칭찬과 격려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선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선 칭찬 후 개선 피드백 제공의 방법은 학습자간 피드백 제공 시 교육 전후 가장 크게 달라진 의사소통 양상이었다. 또한 학습자 개인 영어 발표 동기부여 및 개선점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본 논문의 제한된 지면상, 전체 교육 종료 후 학습자 A의 발표 샘플 예시(채점표 포함)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부록에 제시한 학습자 A의 발표 샘플 진단을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학습자 A의 발표는 교재 마지막 단원의 뉴스 전달하기 과업이다. 학습자 A가 전달하는 뉴스 스토리는 조지훈 시인에 관한 전시 소식이다. 학습자는 뉴스 스토리를 학습자 전공에 적합하고 청중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학습자는 발표 채점표의 발표 구조(서론-본론-결론)에 따라서 필요한 요소들을 포함하여 수행하였다. 비언어적 요소에서는 큰 목소리와 분명한 발음, 청중을 집중시키는 아이컨택 및 발표 강조 시 적절한 제스처 사용 그리고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발표를 하였다. 또한 내용 및 언어적 판정을 위하여 스토리텔링 발달단계 진단(김나희 2019, 신동일 외 7인 2018)을 사용하였다. 위 학습자의 스토리텔링

발달단계는 3등급 원인결과레벨이다. 학습자 발표 예시에서 볼드체로 표시한 ‘The story was about an exhibition to commemorate his life’부터 ‘This exhibition aims to exhibit his poetry a pioneering scholar in Korean studies’까지가 뉴스 스토리 구술이다. 학습자는 위의 발표 요소 5) Summarizing the news story에 맞추어 조지훈 시인의 전시회와 그의 생애를 요약하였다. 해당 예시의 전반부는 전시회 소개, 후반부는 그의 생애로 활동 동사 사용하여 활동들을 나열, 시간순서 및 인과관계로 연결하고 있다. 특히, ‘he participated in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He was tortured and imprisoned for 8 months because of it’은 그의 생애 스토리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시간순서 및 인과관계로 연결시키고 있다. 하지만, 스토리가 더는 진행되지 못하고 바로 ‘his exhibition aims to exhibit his poetry a pioneering scholar in Korean studies’로 전시회 개최 목적으로 활동이 나열되며 마무리되고 있다.

정리하면, 사후진단에서 학습자는 수업 최종 목표인 ‘학습자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 단계에 따라서 청중 앞에서 발표하기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스토리텔링 발달 단계는 3등급 원인결과레벨이다. 물론, 교육 전 스토리텔링 구술 진단 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스토리텔링 발달 레벨로 언어 능숙도 향상도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교육 초반 위 학습자는 실시간 영어 말하기 활동 자체를 낯설고 어색해하였다. 그러나 사후진단에서 명시적으로 학습된 발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스토리텔링 학습 없이 판정한 스토리텔링 발달에서 중급-상 레벨인 3등급은 언어 능숙도 향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진단이 시사하는 점은 단계별 발표 채점은 발표 요소 중심의 유/무 관정으로 발표 구조 학습과 평가에 용이하다. 하지만 학습자 예시처럼 발표 내에 에피소드 및 스토리 포함 시에 세부적 내용과 언어적 평가를 위해서 글로벌 기업 스토리텔링 교육 평가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5. 결론

본 연구는 글로벌 기업 영어 능숙도 중심으로 기획 개발된 영어 프로그램 콘텐츠를 대학 교육 현장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 절차는 글로벌 기업의 영어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실행연구(김나희 2019)를 참조하였다. 순서대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현장 이해이다. 연구 현장이 되는 대학 A는 학생들의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술 목적 영어 중심의 단과대학 수준별 필수 공통교양영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신입생 대상으로 2020년 1학기 학술 목적 글쓰기, 2학기 학술 목적 발표 과목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당시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는 해당 과목 담당 교수자로 수업 현장에서 교육, 평가, 면담, 관찰 등을 수행하면서 대학 영어 현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 현장의 교육과정, 과목 개요 및 학습 목표 안에서 글로벌 기업 영어 콘텐츠 활용 목표 설정이다. 궁극적으로 학습자 주도적으로 발표 구조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경험 혹은 생각을 서술하는 영어 발표이다.

셋째, 대학 현장 이해 및 수업 목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참조점이 되는 글로벌 기업 영어 교육 콘텐츠(김나희 2019, 신동일, 김나희 2019, 신동일 외 7인 2018)를 교육과정, 교육내용, 학습 모듈, 평가 등으로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넷째, 수업 계획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과 다른 대학 맥락의 교육과정, 학습 목표, 진단평가, 수업활동, 수강인원 등의 현장 반영이 계획 수립에서 필요하였다. 따라서 참조점이 되는 글로벌 기업 영어 프로그램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 전 진단-교육 개입-교육 후 진단의 수업 절차를 계획하였다. 대학의 학술 목적 맥락에서 수업의 최종목표는 발표 단계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자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구술하는 영어 발표로 수립하였다.

실제 수업 실행 예시는 1) 교육 전 진단 2) 교육 개입 기획 및 실행 그리고 3) 교육 후 진단 절차로 학습자 영어 발화 진단과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온라인 영어 수업 현장에 맞추어 대학 영어 교육 목표에 따라서 학습자가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모드가 무엇인지를 사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학습자 필요에 따라서 사전녹화강의 및 실시간 zoom 수업으로 구성된 병행강의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교육 수행 과정 및 교육 후 진단에서도 학습자 피드백 수집 및 문제점 파악하여 수업 개선을 위한 계획 및 내용 조정에 반영하였다. 사후평가에서 학습자 발화 샘플 예시를 통해서 교육 초반의 영어 말하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던 발화 특징과 다르게 교육 후에는 수업 목표에 따라서 성공적인 발표 과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스토리텔링 발달 단계에서도 교육 초반과 다른 언어 능숙도 향상을 보인 것으로 판정하였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기업 영어 능숙도 중심으로 기획 개발된 기수행 프로젝트의 대학 활용 탐색 연구로 연구자가 직접 각 교육 현장에 교수자로 참여하여 다른 두 맥락을 이해, 성찰, 탐색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초기 코로나가 발생한 연도에 수행된 연구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온라인 기반의 학습자 소통 중심의 글로벌 기업 영어 교육 콘텐츠 활용 과정을 탐색적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탐색 연구 특성상 후속 연구에서 개선해야 하는 여러 제한점들이 있다. 다음은 개선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첫째, 대학 대면 영어 말하기 수업에서의 적용이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지속으로 인하여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당초 계획의 대면 수업 적용이 아닌 온라인 수업 시도 자체가 중요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면 영어 말하기 수업 현장 적용과 탐색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 영어 발표 학습과 글로벌 기업 영어 스토리텔링 교육 연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맥락의 교육과정, 과목 목표 및 수업 환경 고려가 우선이었기에 기업 영어 스토리텔링 학습 내용을 명시적으로 교육할 수 없었다. 다만, 학습자 개인 발표 샘플 예시에서 발표 채점과 스토리텔링 발달단계 채점 결과를 비교하면서 언어 능숙도 향상 및 교육 평가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단계별 발표 학습과 단계별 스토리텔링 교육 콘텐츠가 교육 평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기획 및 제작되어 탐구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자가 먼저 글로벌 기업 교육 현장에 교수자로 참여한 기수행 프로젝트의 탐색적 후속연구로 이제는 대학 영어 교육 현장의 교수자로 글로벌 기업 영어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기업과 다른 맥락의 대학 현장(예: 교육과정, 학습 목표, 진단평가, 수업 환경, 수강인원 등)에서 선행연구의 글로벌 기업 영어 능숙도 기반의 스토리텔링 교육과정 적용 자체는 어려웠다. 당초 계획과 다른 대학 현장의 특수성은 기업 콘텐츠의 제한적 혹은 부분적 활용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제한점 이외에도 여러 한계점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시사하는 대학 영어 교육 현장의 강점과 가능성은 대학의 체계적, 협력적, 교육적 문제해결 중심의 인프라와 학습자들의 적극적 참여 소통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교수자 혹은

전문가가 교육 개입을 주도하여 진단, 수업 기획 및 조정, 수업 효과를 이끌기까지 여러 역할들(연구자, 평가자, 교수자)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 시작 전 진단부터 크고 작은 교육 활동 선택 및 실행에 있어서 대학의 온라인 수업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온라인 기반의 학습자 피드백 수집, 해당 대학의 교육 행정 시스템 및 협력 소통적 지원 등이다. 학습자들은 필요 진단 뿐만 아니라 영어 말하기 활동, 성찰, 학습 면담 등의 온라인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학습자들과 실시간 소통도 대학의 LMS 플랫폼 기능만으로도 가능하였다. 또한 해당 대학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수업 콘텐츠 자료, 교육 워크샵, 최신 기술 및 교육 자문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했으며, 사용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개선이 무척 신속하였다. 소통적이고 협력적인 교양대학 영어과 교수자 회의 및 교수법 세미나 지원 등으로 불안정했던 코로나 시기에 안정적 교육 수행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보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 현장에서 필요한 대학 영어 능숙도 기반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수업 활동, 평가 등을 기획, 제작, 적용 등으로 보고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나희(Kim, N.). 2019. 글로벌 기업의 언어시험 준비 맥락에서 영어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실행연구: 내러티브 정체성 관점으로(Action research on a global corporation's English storytelling programme in a context of high stakes language test preparation: From narrative identity). 《영어학》(*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9(1), 165-193
- 신동일(Shin, D.). 2009. 『한국의 영어평가학 3: 스토리텔링편』 (*English Assessment in Korea 3: Storytelling*). 서울: 한국문화사(Seoul: Hankookmunhwasa).
- 신동일(Shin, D.). 2016. 『CEFR-BK 모형 제안과 스토리텔링 기반의 영어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Developing CEFR-BK model and English storytelling based-curriculum in a global corporation's context). 미출간 보고서. 서울: 21세기 교육연구소(Seoul: 21st Century Institute of Education).
- 신동일·김금선·심우진·김나희·전종운·김세희·김주연·정태영(Shin, D., K. Kim, W. Shim, N. Kim, J. Jeon, S. Kim, J. Kim and T. Jung). 2018. 글로벌 기업에서 스토리텔링 영어교육 콘텐츠 개발과 적용: 능숙도 향상을 목표로(Developing a curriculum of English storytelling in a global corporation's context: Focus on proficiency building).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3), 265-278.
- 신동일 · 김나희(Shin, D. and N. Kim). 2019. 기업교육에서 역동적 평가모형의 적용: 영어 스토리텔링 교육과정 중심으로(Application of dynamic assessment to a global corporation's storytelling-based curriculum).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3), 777-802.
- 홍수민(Hong, S.). 2018. 삼성전자, 외국어 말하기 1등급 취득해야 임원 승진심사(Samseongjeonja, oegueo malhagi 1deungeum chwideukaeya imwon seungjinsimsa). 중앙일보(Jungangilbo): <http://news.joins.com/article/22333211>에서 2020년 2월 1일에 검색했음.
- Anastasi, A. 1981. Coaching, test sophistication, and developed abilities. *American Psychologist* 36(10), 1086-

1093.

- Bryman, A. 2004. *Social Research Metho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ulcher, G. 2010. *Practical Language Testing*. London: Hodder Education.
- Gershon, S. 2015. *Present Yourself Level 2 Student's Book* (Vol. 2).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mmis, S. and R. McTaggart. 1988. *The Action Research Planner*. Victoria, AU: Deakin University Press.
- Kim, N. H. 2022. Cheating on testing: Cramming on test preparation. *Language Teaching Research Quarterly* 29, 134-146.
- Lidz, C. S. 2002. Mediated learning experience (MLE) as a basis for an alternative approach to assessment.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3(1), 68-84.
- Spencer, T. D. and T. A. Slocum. 2010. The effect of a narrative intervention on story retelling and personal story generation skills of preschoolers with risk factors and narrative language delay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32(3), 178-199.
- Stein, N. and C. Glenn. 1979. An analysis of story comprehen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R. O. Freedle, ed., *New Directions in Discourse Processing*, 53-120. Norwood, NJ: Ablex.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 Tertiary

부록

학습자 A 발표 예시

학습자 발표 예시

Hello, everyone! 'Literary giant's life revisited', this is a report about Cho Ji-hoon in Korea. I recently read online. It got my attention because I'm interested in reading poetry. The story was fascinating so it will interest you too. I will briefly outline main points and share my reaction. Then I hope you will share your thoughts and ideas. **The story was about an exhibition to commemorate his life. According to the report, his personal belongings are exhibited to commemorate the centennial of his birth. From now on I will explain this exhibition and his life. The article said this exhibition placed his manuscript books and personal items like smoking pipe fountain pen and glasses. These make us look back on his life work, philosophy, and academic competence. And he participated in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He was tortured and imprisoned for 8 months because of it. This exhibition aims to exhibit his poetry a pioneering scholar in Korean studies.** Now, what is my reaction to the article? before I read the story, I didn't know how passionate he was. I was moved and I think it is honorable. I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other poets' life like hi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K then, those are the key points the article on the exhibition for sure and my reactions as I said to me it's informative and so touching. Most of all it leaves me asking the question, 'what can we do to remember great poets like him?' I wonder what you think. Thank you.

■ 발표 요소 채점표			
구분	요소	판정기준	판정
1	Introduction	1) Greeting the audience	○
		2) Saying an opener	○
		3) Saying a topic statement	○
		4) Saying a preview	○
2	Body	5) Summarizing the news story	○
		6) Giving reaction to it	○
3	Conclusion	7) Saying a signal phrase	○
		8) Saying a review	○
		9) Saying a closer	○
		10) Thank the audience	○
■ 스토리텔링 발달단계 채점표			
등급	단계	판정기준	판정
4	서사구조	- 줄거리를 처음(배경)-중간(문제)-끝(결과) 순서로 전달할 수 있다. - 스토리요소(배경-문제-반응-시도-결과-반응)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
3	원인결과	- 활동 동사를 사용하여 시간 순서 및 원인 결과로 행동들을 연결할 수 있다.	○
2	시간순서	- 활동 동사를 사용하여 시간 순서대로 행동들을 연결할 수 있다.	○
1	활동나열	- 활동(action)동사를 사용하여 일상의 활동들을 나열할 수 있다.	○